

“임기 등 진퇴문제 맡기겠다”...국회에 공 넘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또 ‘불통’ 4분 담화...사실상 조기 퇴진 수용 검찰수사·촛불민심에도 모든 의혹 결백 주장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퇴진 일정을 국회에 일임하며 조건부 사퇴 의사를 밝혔다. <관련기사 2·3·4·5면>
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며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어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은 국회가 총리 추천과 거국내각 구성, 조기대선 일정 등 구체적인 퇴진 로드맵을 여야가 논의해 확정해주면 이에 따르겠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은 개헌을 통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달라는 요구로도 해석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의를 추궁하지 않았고 작은 사실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며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검찰과 야당이 주장하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하지만 주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돌이켜보면 지난 18년 동안 국민 여러분과 함께했던 여정은 더 없이 고맙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해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담화가 끝난 뒤 질문하는 기자들에게 박 대통령은 “오늘은 무거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하기 어렵다)”며 “가까운 시일 안에 여러 가지 경위에 대해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고 여러분이 질문하고 싶은 것도 그때 하면 좋겠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3野 “탄핵 피하기 꿈수...탄핵 예정대로 강행”

내달 2일 본회의 처리기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탄핵을 모면하려는 꿈수’로 규정하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

린 의원총회에서 박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와 관련, “아무런 반성과 참회도 없다”며 “탄핵을 앞둔 교란책이자 탄핵을 피하기 꿈수”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탄핵 절차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단일대오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에게 다음달 1일까지 스스로 퇴진 일정을 발표할 것을 요구하며 탄핵을 병행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국회에 자신의 거취를 맡기겠다고 한 것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을 계산한 제언”이라며 “대통령의 꿈수 정치를 규탄하며 야(野) 3당과 양심적인 새누리당 의원들과 계속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도 “결국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새누리당을 향한 탄핵 교란 작전 지시”라고 비난했다. 심 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야 정쟁을 유도하고 새누리당을 방탄조끼 삼아 탄핵을 모면하려는 꿈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야당에 탄핵 일정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담화에 대한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에서 야권의 탄핵 소추에 새누리당 비박(비 박근혜) 의원들이 30명 이상 동참, 의결 정족수를 채울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아시아 광주진료소 제2호 네팔에 내년 초 개원한다

광주일보 후원...포카라 인근
오늘 임시 개원 의료 서비스

광주일보가 후원하고 있는 아시아 광주진료소가 캄보디아에 이어 두 번째로 내년 초 네팔에 문을 연다.
29일 광주시와 (사)희망나무에 따르면 네팔에 들어설 제2호 아시아 광주진료소는 네팔 관광도시인 포카라에서 북서쪽으로 45km 떨어진 안나푸르나 입구 파르밧현(Parbat District) 디무와(Dimuwa) 마을에 30일 임시 개원한다.

14개 마을에 인구 15만명인 파르밧 현에는 현재 의료기관이 없어, 주민들은 2시간 이상 떨어진 인근 지역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거나 아예 병원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의료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지인과 안나푸르나와 관광도시 포카라를 찾는 전 세계의 트레커·관광객들에게 광주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네팔 진료소는 건평 70평·주차장 40평의 2층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게 되며, 진료소 내부는 내·소아과 진료실과 안과·치과 치료실, 검사실, 한방 진료실, 방사선실, 접수창구, 외래임원실 등으로 꾸며진다.

특히 디지털 엑스레이와 초음파, 심전도기, 안과장비, 치과장비, 일반 내과 및 간단한 외과장비, 검사장비 등 최신 의료장비 등도 갖출게 된다. 또한, 인터넷과 전화, CCTV가 설치돼 국내에서도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볼 수 있으며, 원격 진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진료소에는 현지 의사와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건물관리자 각 1명씩 채용돼 근무하게 되며, 광주 의료진들은 매년 4~5차례 현지 의료봉사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네팔이 제2호 아시아 광주진료소 건립지로 떠오른 것은 지난해 4월 규모 7.8의 강진으로 9000여명이 사망하고 주택 90여만호가 파괴되는 피해를 입었을 당시 광주시가 민간 의료진, 119소방대 등을 긴급구호단으로 파견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당시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의료진, (사)희망나무, 광주시 소방본부 119구조대원 등이 참여한 3차례 의료진과 구호단을 파견해 구호활동을 벌였고, 텐트와 모포 등 구호물품도 전달했다.

이를 계기로 2015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석하는 네팔 선수들 돕기도 이뤄졌었다.

네팔 진료소 개원을 위해 현지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전성현 아이퍼스트원장(사)희망나무 공동대표는 “진료소 운영을 위해 11명의 지역자치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내년 초 정식 개원에 앞서 진료소 내부 공사가 모두 마무리되는 30일부터 임시 개원을 통해 진료를 시작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광주진료소를 홍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30일 임시 개원을 위한 진료에는 전 대표를 비롯, 미르치와 박석인 대표원장, 이상영 청원의료재단 이사장, 지전 의료재단 등 의료진이 참여하게 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주도 뚫렸다...AI 확산 초비상 ▶6면

영광 꿈꾸는 선수 영광으로 오라 ▶11면

시간 속을 걷다...노들담 제화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승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생각한다. 반응한다.
지능적으로

The New E-Class. Masterpiece of Intelligence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1041 (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300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4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8km/ℓ (도심연비: 9.6km/ℓ, 고속도로연비: 12.6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1g/km E 30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9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3km/ℓ (도심연비: 9.3km/ℓ, 고속도로연비: 12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9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